

특집

사육단계별로 보는 겨울철 폐사 감소 대책

이유 후 육성률 향상을 위한 이유자돈사 관리

이유자돈 관리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필자도 직접 육성자돈사 관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알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육성사를 운용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유자돈을 좀 더 튼튼하게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기술한다.

1. 입식전 이유 자돈사 준비 사항

가. All-IN, All-OUT

질병의 수평적 전파를 근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약 돈사의 구조가 AIAO(all-in, all-out)을 실시할 수 없다면 자돈 돈군의 일령차이가 2주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돈사가 나뉘어져 있지 않다면 비닐로도 충분히 돈사를 구획시킬 수 있으므로 농장 상황에 맞게 AIAO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돈사의 수세, 소독

신규 이유자돈이 입식되기 전에는 전에 사육하던 자돈의 분비물을 모두 청소하여야 한다.

동절기에 접어들면 많은 농가에서 돈·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수세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장 질병의 연속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세 후에는 소독을 실시하여 수세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겠다.

(표) 돈사 수세 및 소독 일정

0일	~2일	~3일	~6일	~7일	
자돈 전출	수세	소독	건조	소독	자돈 입식

고 상 역 수의사
선진 브릿지랩

특집 : 겨울철 폐사 감소 대책

다. 자돈 입식전 돈사 가온

동절기 빈 돈사의 온도는 실외 온도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갓 이유된 자돈이 들어올 경우 추위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입식 하루 전부터 돈사에 보온 장비를 가동시켜 적정 온도(23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돈사 내부로 셋바람의 유입이 없도록 돈사의 틈새를 비닐이나 보온덮개를 사용하여 막아주어야 한다.

2. 입식시 관리사항

가. 이유자돈 이동

이유시 관리인들이 바쁘다고 자돈을 무리하게 다루거나 너무 몰아 세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돈사 밖으로

의 이동 경로가 길어지면 추운 날씨에 의한 영향이 있으므로 찬바람에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동 간에 손수레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자돈을 안전하게 옮기면 자돈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돈 구분 사육

이유돈사에 자돈을 수용할 때 자돈의 크기별로 구분 수용하여야 한다.

강, 약 구분 수용이 되지 않으면 크기가 작고 약한 자돈들이 서열 경쟁에서 뒤져 위축돈이 다수 발생하므로 한 돈방에 수용되는 자돈들의 크기가 균일할 수 있도록 이유 전입시 체구별로 구분 수용한다. 또한 암, 수 구분사육을 실시한다.

암컷과 수컷의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유시기에 한번 구분 수용하면 육성시기에 크기별로 구분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으며, 출하시 출하체중 관리에도 수월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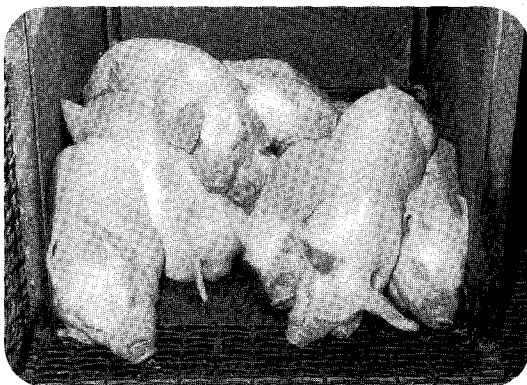
이유시기에 자돈을 강약, 암수 구분하여 사육할 필요가 있다.

다. 투쟁방지

자돈을 돈방에 혼합하여 수용하게 되면 약 3~5일 정도로 투쟁하며 서열을 확정짓는데, 이때 투쟁으로 인한 상처가 자돈에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처입은 자돈들은 사료 섭취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위축이 발생하게 되는데, 입식시 돈방 내에서 심한 투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식 돈방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넣어주어 투쟁을 예방하도록 한다.

3. 위축돈 관리

이유후 자돈간의 투쟁, 이유 스트레스, 고정화된 사료 섭취에 의한 소화력 부족으로 인한 설사 발생 등으로 자돈이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여 위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위축자돈은 이유후 7일 이내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위축돈 발생을 줄일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입식후 7일간 이



유자돈에 대한 중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료급여

전입시 체중이 작은 자돈돈방은 국소 보온을 실시해 주며 영양가 높은 사료를 급여한다(요즘 사료 회사에서 액상 급여용 대용유 사료가 생산되고 있다. 대용유 : 입불 이사료 = 5 : 5 혼합 급여).

전입후 발생되는 위축자돈은 발생 즉시 기존 돈군과 격리시키고 별도의 영양가 높은 사료(대용유 : 입불 이사료 = 3:7)를 급여하며, 국소 보온을 실시해 준다.

나. 보온

이유 돈사의 실내 온도는 23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체중이 작은 돈방과 위축자돈을 수용한 격리 돈방에는 보온등을 켜주어 자돈의 체감 온도를 30도 정도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차가운 셋바람이 직접 자돈에게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투약

질병예방 목적으로 약품의

투약을 원한다면 이유자돈 급여사료에 (ctc 500ppm/ 사료 ton) 첨가하여 3주간 급여한다. 투약기간이 길어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료 섭취량이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약품의 추가비용 부담보다는 자돈의 성장촉진 및 위축돈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는 이익을 가져 오게 된다.

위의 글은 필자가 직접 자돈을 관리하면서 21일 이후하여 70일령까지 자돈을 육성하는데 있어 육성률 99%이상 가져 오게 한 내용들이다. 각각의 농장구조 특성상 비교는 안되겠지만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자돈 관리는 무엇보다도 관리자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한번 더 자돈을 관찰하는 관리습관을 가지도록 해보자. 그럼 농장의 성적은 부쩍 향상될 것이다. **양돈**

질병의 수평적 전파를 근절하기 위해서 all-in, all-out은 실시되어야 한다.

신규 이유자돈이 입식되기 전에는 전에 사육하던 자돈의 분비물을 모두 청소하여야 한다. 이유시기에 자돈을 강약, 암수 구분하여 사육할 필요가 있다.

입식시 돈방 내에서 심한 투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식 돈방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넣어주어 투쟁을 예방하도록 한다.

이유후 자돈간의 투쟁, 이유 스트레스, 고형화된 사료섭취에 의한 소화력 부족으로 인한 설사 발생 등으로 자돈이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여 위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식후 7일간 이유자돈에 대한 중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돈 관리는 무엇보다도 관리자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한번 더 자돈을 관찰하는 관리습관을 가지도록 해보자.